

##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최윤숙\*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의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스트레스와 유아회복탄력성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둘째, 유아스트레스가 유아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셋째, 유아스트레스와 유아회복탄력성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1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만 5세 유아, 유아의 어머니, 유아의 선생님을 유의한 답변 202개로 이를 대상으로 SPSS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측정된 문항들의 타당도는 요인분석을, 신뢰도는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는 첫째, 어머니 양육태도는 애정성과 자율성으로, 유아스트레스는 불안-좌절 경험, 비난-공격 상황, 자존감 손상으로, 유아회복탄력성은 공감능력, 낙관성, 문제해결력,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성, 충동 통제력으로,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사회성, 자율성, 적극성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어머니 양육태도 중 애정성이 높으면 유아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관계가 성립하였으나, 자율성은 유아스트레스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스트레스와 유아회복탄력성 또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회복탄력성은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유아스트레스는 일부만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유아의 충동 통제력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 특히 남아가 여아보다 충동 통제력이 낮았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남아의 충동 통제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스트레스, 유아회복탄력성, 유아교육기관 적응, 만 5세 유아

논문 투고일: 2021. 7. 23.

최종심사일: 2021. 8. 11

게재확정일: 2021. 9. 12.

\* 성원어린이집 원장

Corresponding Author: Choi, YoonSook, 36, Majang-ro 39-gil, Seongdong-gu, Seoul, Korea, 04756.  
E-Mail: keum9510@hanmail.net

## I. 서론

역동적이고 급변하는 사회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현대인들의 사회경쟁 속에서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자녀는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어머니와 관계를 형성하고, 어머니는 바람직한 애착을 통해 자녀가 상호작용하는 능력자로 자라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적인 존재라고 한다. 또한, 부모는 유아의 역할 모델로 지적·문화적 자극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김명순, 2013; 김수연, 2003). 자녀는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기초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패턴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운다(김경희, 1987). 유아시기에 부모의 양육조건과 양육방식이 개인의 성격발달을 결정한다고 하였고,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의 질적 수준이 사교육보다 중요한 양육환경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였다(Sears, 1970).

이렇듯 중요한 역할자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적절한 훈육방식별 정서 지능은 아이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안순조, 2005). 한편, 풍요로워진 생활경제도 양육에 깊은 관련이 있으며,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 양육의 과보호적인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이든 원하면 다 들어주는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태도는 스스로 인내하는 독립심과 자발심이 없는 아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박영심, 2014). 이러한 유아의 태도는 자기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는 자기중심적 성향으로 발달하기 쉽고, 개체성 존중의 결여, 과잉통제, 과잉보호는 아동 양육방법에 대한 무지, 혼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김희정, 2012).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영·유아기 정서적 경험이 그 유아가 성장한 이후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아의 정서능력에 매우 중요하다(이원영, 1983).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에서 기초적인 정신과 신체적인 기술들을 익히는 유아기 스트레스가 최근 산업화시대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다. 학자나 임상 전문가들은 “유아가 받는 스트레스는 부모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유아는 스트레스 원인을 지각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불안과 초조, 우울, 슬픔, 분노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김금희, 2020; 김영실·변지원·김익균, 2020; 도미향·김응자·김경미, 2020).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이 부족한 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원은 유아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변화, 부모의 이혼, 별거, 가정에서 생기는 문제, 한 부모 가정, 빈곤, 아동학대, 방임, 가정폭력, 부모의 양육결핍 등이다(Barton & Zeanah, 1990; 재인용). 유아가 이 같은 스트레스 위협을 안고 성장하는 동안 사회적 관계에서의 심리적 부적응 상태도 온다. 한편, 만 5세는 신체·언어·정서·사회 등의 학습 인지능력과 사회적 정서확장 시기이므로 유아들에게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다.

유아가 스트레스를 회복하는데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양육자인 부모이다.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 지지적인 양육과 상호작용, 긍정적인 관계들은 유아가 부정적 환경을 극복하는데 힘이 된다(이지현, 2012). 따라서 긍정적 존재로 인하여 유아가 회복탄력성을 높여 스트레스로 인한 위기의 순간을 유연하게 극복하여 평정심을 되찾고 애정성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유아의 탄력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유아기에 위협요소를 줄이기 위해 중재가 필요하고, 어떤 아동은 자연적 과정을 통해 탄력성을 발달시키지만 어떤 아동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며, 이후 발달에 필요한 탄탄한 기초 형성, 유능감 증진, 자원 증대, 위협을 방지하는 중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Masten & Garmezy, 2006; 재인용).

부모는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만 지적하고 이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애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보일 때,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이미자, 2000). 즉, 유아의 회복탄력성은 양육자, 부모와 교사의 애정적인 관심과 지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주위환경에 의해 질적인 보호 안에서 양육되어야 마땅하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자극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유아의 성격과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정에서 자녀와의 놀이를 통한 어머니 양육태도의 정서적 영향은 유아의 반응적인 정서경험으로 교육기관 적응태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유아의 평소 행동을 지나치게 참견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의 자유선택활동 시 독립적인 선택능력이 부족하여 교사나 또래에게 의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어머니의 애정성 있는 태도와 긍정적인 반응태도는 유아를 교육기관의 환경적응에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합리적이며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과 성취동기와 인기도, 사회성 등과 같은 요인들과 정적 상관이 있다(정은영·장성숙, 2008). 반면, 가족과 격리를 경험하며 영·유아가 교육기관에 입소한 직후 그 환경에 적응하는 짧은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애착보다 오히려 보육시설 교사와의 상호작용 관계이다(Vaughn, Dean & Waters, 1985; 이지현, 2010 재인용). 안정적인 지지와 태도가 영·유아·교

사와의 관계, 보육시설 환경에서 영아들의 탐색활동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이지현, 2010). 이러한 유아들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유아가 어머니나 교사를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관심과 보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유아의 스트레스, 유아의 회복탄력성 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양육태도 특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보일 때, 유아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대부분 시사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유아의 정서적 행동에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및 회복탄력성에 필요한 요인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교육기관 적응문제 간의 관계를 조사, 분석한다. 또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스트레스와 유아회복탄력성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유아 스트레스가 유아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유아의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1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만 5세 유아, 유아의 어머니, 유아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킨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어머니와 교사들에게 각각 총 250부씩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어머니용 238부, 교사용 237부 중 유의한 답변 202개로 대상으로 SPSS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측

정한 문항들의 타당도는 요인분석을, 신뢰도는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 2. 측정 도구

### 1)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Schaefer(1959)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이원영(1983)이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내용을 김명순(2013)이 재구성한 측정도구 4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 2) 유아의 스트레스

유아의 스트레스는 염현경이 제작한 23문항으로 구성된 한국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KPDS(Korean Preschool Daily Stress Scale)를 이연희(2013)가 18문항으로 축소하여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선생님이 유아와의 면담을 통해 질문한 후 유아의 답변을 토대로 평가하는 4단계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 3) 유아의 회복탄력성

유아의 회복탄력성은 HKRM(Healthy Kids Resilience Module)과 DECA(Devereux Early Childhood Assessment)의 문항을 토대로 Reivich & Shatte가 제시한 회복탄력성의 7개 하위요인을 기준으로 이지현(2012)이 재구성 및 보완한 21문항을 사용하였다. 선생님이 유아와의 면담을 통해 질문한 후 유아의 답변을 토대로 평가하는 4단계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 4)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PAQ(The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를 김현경(2009)이 수정·보안한 28문항 중에서 17문항을 발췌, 재구성하여 타당도와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하였으며 <표 1>과 같다.

**<표 1> 각 변수별 신뢰도**

변 수	하위요인	크롬바하 알파
어머니 양육태도	애정적	.923
	거부적	.831
	자율적	.876
	통제적	.804
유아 스트레스	불안, 좌절 경험	.835
	비난, 공격 상황	.662
	자존감 손상	.651
회복탄력성	공감능력	.588
	낙관성	.585
	문제해결력	.675
	자기효능감	.550
	적극적 도전성	.562
	정서 조절력	.376
	충동 통제력	.535
유아 교육기관 적응	사회성	.896
	자율성	.905
	적극성	.798

## 2.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스트레스와 유아의 회복탄력성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1 :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어머니 양육태도인 애정성과 유아 스트레스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1-2 어머니 양육태도인 자율성과 유아 스트레스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유아의 스트레스가 유아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유아스트레스와 유아회복탄력성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사회성은 유아의 회복탄력성과는 정(+)의 관계가 유아의 스트레스는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3-2 자율성은 유아의 회복탄력성과는 정(+)의 관계가 유아의 스트레스는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3-3 적극성은 유아의 회복탄력성과는 정(+)의 관계가 유아의 스트레스는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4가지 개념의 측정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구분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는 서울시에 위치한 국·공립 10개소 어린이집에 만 5세를 둔 어머니와 교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지 답변과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16년 4월18일부터 5월13일까지였고, 어머니와 교사들에게 각각 250부씩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어머니용 238부, 교사용 237부였고, 이 중 어머니와 유아의 응답이 대응되는 202부만 통계분석으로 사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만 5세 유아의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그리고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N)	퍼센트(%)	
유아	성별	남자	107	53.0
		여자	95	47.0
	출생순서	첫째	97	48.0
		둘째	82	40.6
셋째 이상		23	11.4	
어머니	연령	30세 이하	6	3.0
		31~35세	43	21.3
		35~40세	101	50.0
		41세 이상	52	25.7
	최종학력	고졸 이하	46	22.8
		학사	135	66.8
		석사 이상	21	10.4
	현재 직업	전문 기술직	29	14.4
		행정관리직	8	4.0
		사무직	34	16.8
		판매 및 서비스직	18	8.9
		생산기능직	7	3.5
		전업주부	77	38.1
		기타	29	14.4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2	5.0
		200~400만원 미만	78	38.6
		400~600만원 미만	65	32.2
		600~800만원 미만	31	15.3
		800만원 이상	16	7.9
	하루 평균 놀이 시간	30분 미만	21	10.4
30분~1시간 미만		60	29.7	
1시간~1시간 30분 미만		60	29.7	
1시간 30분~2시간 미만		35	17.3	
2시간~2시간 30분 미만		14	6.9	
2시간 30분 이상		12	5.9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유아들과 개인적으로 만나 유아의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을 측정하였으며, 교사들이 느끼는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도를 평가 하였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어린이집 선생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N)	퍼센트(%)
성별	남자	7	3.5
	여자	195	96.5
연령	20대	60	29.7
	30대	109	54.0
	40대 이상	33	16.3
선생님 근무 경력 (단위: 년)	1	16	7.9
	4	37	18.3
	5	35	17.3
	6	8	4.0
	9	49	24.3
	10	21	10.4
	11	17	8.4
	18	19	9.4
현재 교육기관 근무 경력 (단위: 년)	1	26	12.9
	2	63	31.2
	3	34	16.8
	4	42	20.8
	5	23	11.4
	6	14	6.9

어린이집 선생님의 연령은 30(54%)대가 가장 많았고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선생님이 149명으로 7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기관에 근무한 경력은 2년(31.2%) 근무 경력 선생님이 가장 많았다.

## 2. 가설검정

### 1) 가설 1 검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였다. 가설 1을 검정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태도인 애정성과 자율성, 그리고 유아의 스트레스인 불안-좌절 경험, 비난-공격 상황, 자존감 손상 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가설 1 검정을 위한 상관계수와 유의확률(양쪽)**

변수	애정성	자율성	불안-좌절 경험	비난-공격 상황	자존감 손상
애정성	1.000	0.517*** (.000)	-0.152** (.031)	-0.188*** (.007)	-0.155** (.028)
자율성		1.000	0.032 (.647)	-0.095 (.178)	-0.047 (.511)
불안-좌절 경험			1.000	0.654*** (.000)	0.708*** (.000)
비난-공격 상황				1.000	0.618*** (.000)
자존감 손상					1.000

\*p<0.1, \*\*p<0.05, \*\*\*p<0.01

<표 4>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성과 유아의 스트레스인 불안-좌절 경험, 비난-공격 상황, 자존감 손상은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자율성은 유아의 스트레스인 불안-좌절 경험, 비난-공격 상황, 자존감 손상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1-1은 채택되었고,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그러므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 2) 가설 2 검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는 ‘유아스트레스가 유아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였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유아의 스트레스인 불안-좌절 경험, 비난-공격 상황, 자존감 손상 그리고 유아의 회복탄력성인 공감능력, 낙관성, 문제해결력,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성, 충동 통제력 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가설 2 검정을 위한 상관계수와 유의확률(양쪽)**

변수	불안-좌절 경험	비난-공격 상황	자존감 손상	공감능력	낙관성	문제해결력	자기효능감	적극적도전성	충동 통제력
불안-좌절 경험	1.000	0.654*** (.000)	0.708*** (.000)	0.011 (.873)	0.070 (.322)	0.008 (.909)	0.000 (.998)	0.009 (.898)	-0.104 (.140)
비난-공격 상황		1.000	0.618*** (.000)	0.014 (.841)	0.074 (.294)	0.051 (.472)	0.097 (.168)	0.068 (.339)	0.001 (.990)
자존감 손상			1.000	0.039 (.581)	0.053 (.451)	0.018 (.803)	0.094 (.182)	0.093 (.188)	-0.110 (.118)

공감 능력				1.000	0.512*** (.000)	0.502*** (.000)	0.345*** (.000)	0.514*** (.000)	0.424*** (.000)
낙관성					1.000	0.457*** (.000)	0.537*** (.000)	0.460*** (.000)	0.450*** (.000)
문제 해결력						1.000	0.433*** (.000)	0.428*** (.000)	0.381*** (.000)
자기 효능감							1.000	0.398*** (.000)	0.344*** (.000)
적극적 도전성								1.000	0.296*** (.000)
충동 통제력									1.000

\*p<0.1, \*\*p<0.05, \*\*\*p<0.01

<표 5>에서 보듯이 유아의 스트레스는 유아의 회복탄력성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2는 모두 기각되었다.

### 3) 가설 3 검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3은 “유아스트레스와 유아회복탄력성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였다.

가설 3-1을 검정하기 위해 유아교육기관 적응 중 사회성을 종속변수로 유아의 스트레스 3개 변수와 유아의 회복탄력성 6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단계별(stepwise)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유아의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 변수	R <sup>2</sup>	계수			t	유의확률
		회귀계수(B)	표준오차			
(상수)		1.483	.244		6.083	.000***
충동 통제력	.320	.497	.065	.491	7.624	.000***
낙관성	.342	.169	.077	.166	2.576	.011**

R = 0.585 R<sup>2</sup> = 0.342 Adjusted R<sup>2</sup> = 0.335

추정값의 표준오차 = 0.600

종속변수: 사회성, F = 51.699 (df = 2, 199, p = .000)

\*p<0.1, \*\*p<0.05, \*\*\*p<0.01

<표 6>에서 보듯이 유아의 충동 통제력과 낙관성이 높아질수록 사회성이 높아진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표준화 계수( )으로 비교해 보면 충동 통제력은 0.491로 낙관성의 0.166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3개 변수도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가설 3-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가설 3-2를 검정하기 위해 유아교육기관 적응 중 자율성을 독립변수로 유아의 스트레스 3개 변수와 유아의 회복탄력성 6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단계별(stepwise)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유아의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이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 변수	R <sup>2</sup>	계수			t	유의확률
		회귀계수(B)	표준오차			
(상수)		1.019	.273		3.734	.000***
낙관성	.221	.213	.089	.181	2.402	.017**
적극적 도전성	.284	.239	.070	.229	3.439	.001***
충동 통제력	.330	.221	.065	.223	3.408	.001***
자기효능감	.346	.180	.081	.155	2.213	.028**

R= 0.588 R<sup>2</sup> = 0.346 Adjusted R<sup>2</sup> = 0.333

추정값의 표준오차 = 0.588

종속변수: 자율성, F = 26.047 (df = 4, 197, p = .000)

\*p<0.1, \*\*p<0.05, \*\*\*p<0.01

<표 7>에서 보듯이 유아의 낙관성, 적극적 도전성, 충동 통제력,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표준화 계수( )로 비교해 보면 적극적 도전성이 0.22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충동 통제력 0.223, 낙관성 0.181, 자기효능감 0.155의 순으로 자율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 밖의 공감능력, 문제해결력은 자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3-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가설 3-3을 검정하기 위해 유아교육기관 적응 중 적극성을 종속변수로 유아의 스트레스 3개 변수와 유아의 회복탄력성 6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단계별(stepwise)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유아의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이 적극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 변수	R <sup>2</sup>	계수			t	유의확률
		회귀계수(B)	표준오차			
(상수)		2.253	.282		7.986	.000***
충동 통제력	.145	.295	.066	.297	4.471	.000***
적극적 도전성	.192	.244	.069	.232	3.520	.001***
불안-좌절 경험	.214	-.162	.068	-.151	-2.386	.018**

R= 0.463 R<sup>2</sup> = 0.214 Adjusted R<sup>2</sup> = 0.202

추정값의 표준오차 = 0.646

종속변수: 적극성, F = 18.007 (df = 3, 198, p = .000)

\*p<0.1, \*\*p<0.05, \*\*\*p<0.01

<표 8>에서 보듯이 유아의 충동 통제력과 적극적 도전성이 높아질수록 적극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표준화 계수( )로 비교해 보면 충동 통제력이 0.297로 적극적 도전성의 0.242보다 높았다. 그 밖의 공감능력, 낙관성, 문제해결력, 자기효능감은 적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3개 변수 중 불안-좌절 경험이 적을수록 적극성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발견 되었다. 그러나 비난-공격 상황이나 자존감 손상은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는 유아의 회복탄력성이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트레스 변수 중 불안-좌절 경험만이 적극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3-3은 채택되었다. 지금까지 세 개의 가설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표 9> 가설 검정 결과의 요약**

가설 번호	가설 내용	결과
1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1-1	어머니의 애정성과 유아의 스트레스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1-2	어머니의 자율성과 유아의 스트레스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기각
2	유아의 스트레스가 유아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	유아 교육기관 적응이 유아의 회복탄력성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3-1	사회성은 유아의 회복탄력성과는 정(+ )의 관계가 유아의 스트레스와는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부분 채택
3-2	자율성은 유아의 회복탄력성과는 정(+ )의 관계가 유아의 스트레스와는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부분 채택
3-3	적극성은 유아의 회복탄력성과는 정(+ )의 관계가 유아의 스트레스와는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 IV. 결론 및 논의

###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문헌연구와 만 5세 유아와 어머니,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만 5세 유아의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그리고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자 202명의 응답을 통계분석 하였다. 응답자 중 유아의 성별은 남자 107명, 여자 95명으로 남자가 약간 많았고, 출생 순위는 첫째 97명, 둘째 82명, 셋째 이상 2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선생님의 성별은 남자 7명, 여자 195명으로 여자 선생님이 많았으며, 수집된 자료의 타당도는 SPSS(사회과학용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는 크롬바하 알파(Cronbach alpha)를 산출하여 문항간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인 애정성과 자율성, 그리고 유아의 스트레스인 불안-좌절 경험, 비난-공격 상황, 자존감 손상 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성과 유아의 스트레스인 불안-좌절 경험, 비난-공격 상황, 자존감 손상은 음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자율성은 유아의 스트레스인 불안-좌절 경험, 비난-공격 상황, 자존감 손상과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1-1(어머니의 양육태도인 애정성과 유아의 스트레스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은 채택되었고, 가설 1-2(어머니의 양육태도인 자율성과 유아의 스트레스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그러므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둘째, 가설 2는 ‘유아의 스트레스가 유아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였다. 유아의 스트레스인 불안-좌절 경험, 비난-공격 상황, 자존감 손상 그리고 유아의 회복탄력성인 공감능력, 낙관성, 문제해결력,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성, 충동통제력 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유아의 스트레스는 유아의 회복탄력성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3은 ‘유아스트레스와 유아회복탄력성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였다. 이에 따라 가설 3-1은 사회성을 종속변수로, 유아의 스트레스 3개 변수와 회복탄력성 6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충동 통제력과 낙관성이 높아질수록 사회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사회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충동 통제력이었고, 그 다음은 낙관성이었다. 그 밖의 공감능력, 문제해결력,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성은 사회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3개 변수도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가설 3-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가설 3-2는 자율성을 종속변수로, 유아의 스트레스 3개 변수와 회복탄력성 6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낙관성, 적극적 도전성, 충동통제력,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적극적 도전성이 자율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고, 다음으로 충동 통제력, 낙관성, 자기효능감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공감능력, 문제해결력은 자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3개 변수도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가설 3-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가설 3-3은 적극성을 종속변수로, 유아의 스트레스 3개 변수와 회복탄력성 6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충동통제력과 적극적 도전성이 높아질수록, 불안-좌절 경험이 적을수록 적극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는 유아의 회복탄력성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트레스 변수 중 불안-좌절 경험이 적극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3은 채택되었다. 이로써 가설 3-1과 3-2는 부분 채택되고, 3-3은 채택되어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이상 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스트레스, 유아의 회복탄력성, 유아교육기관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아가 교육기관에 잘 적응하고 친사회성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애정성 있는 정서적 태도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유아의 자율성 규제는 적절히 거부하고 통제하는 발달적인 양육태도를 지향해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친화력이 높은 아이들로 성장하여 교육기관 및 나아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만 5세 유아의 어머니와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에 의해서만 설문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의 유아들 등으로 확대하여 실시해 보는 것이 요구되며, 다양한 가족형태가 공존하는 현 시점에서 주 양육자가 다양해짐에 따라 아버지나 조부모 등이 유아들을 돌보는 경우를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둘째, 유아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탄력적으로 사회적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발전되고 전략적인 교육 자료나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며, 어머니를 비롯한 양육자들의 양육태도에 대한 질적인 자료를 보강하는 한편 바람직한 양육을 위한 교육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아에게 첫째 타자인 양육자를 제외하고 주변에 유아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인물이나 환경 변인들에 대하여 심층적인 후속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아의 충동 통제력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아가 여아보다 충동 통제력이 낮았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남아의 충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아가 남아보다 유아교육기관 적응도가 높았다. 이것은 본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집 선생님 중 여자가 96.5%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남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어린이집 남자 선생님의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김경희(1987). 아동의 유추적 문제해결에 관한 실험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금희(2020).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아동권리준중 인식 정보 및 프로그램 효과와 그 적용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17(4), 5-27.
- 김명순(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창의적 인성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2003). 유아의 창의성과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 간의 구조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경(2009).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관련 변인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실·변지원·김익균(2020). 유아교사의 전문성 관련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부모교육연구*, 17(4), 51-69.
- 김희정(2012).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미향·김용자·김경미(2020). 가정위탁 부모 양육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부모코칭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부모교육연구*, 17(4), 29-50.
- 박영심(2014). 유아의 탄력성과 또래놀이 상호작용 및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순조(2005). 어머니의 훈육방식별 유아의 정서지능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자(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희(2013). 유아의 회복탄력성과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현(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초기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2012). 만5세 유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의 회복탄력성의 경향 및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영·장성숙(2008).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 개발: 탐색적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 치료*, 20(2), 293-312.
- Barton, M. L. & Zeanah, C. H.(1990). Stress in the preschool years. In L. E. Arnold's(Ed) *Childhood Stress*(pp. 193-221). NY: John Wiley & Sons. Inc.
- Masten, A. & Garmezy, A.(2006). Resilience in development: The importance of early childhood. In *Encyclopedia 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Montreal; *Center of Excellence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pp. 1-52). New york: Plenum.
- Schaefer, E. S.(1959). Development of a parental attitude research instrument. *Child Development*, 29, 340-361.
- Sears, R. R.(1970). Relation of early socialization experiences to self-concepts and gender role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41(2), 267-289.

Vaughn, B.E., Deane, K. E. & Waters, E. (1985) The Impact of Out-of-Home Care on Child-Mother Attachment Quality: Another Look at Some Enduring Ques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 110-135.

Abstract

## The Influences of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towards Children's Stress, Resilience, and Adjustment to Early Childhood Educational Centers

Choi, Yoon 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verify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attitudes of 5-year-old children attending daycare centers on infant stress, infant resilience, and adapta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First,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attitude on infant stress is investigated. Second, the effect of infant stress on infant resilience is investigated. Third, the effect of infant stress and infant resilience on adapta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is investigated.

In this study,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for 202 significant responses to 5-year-old infants, mothers of infants, and teachers of infants in 10 national and public day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The validity of the items measuring adapta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was verified using factor analysis, and the reliability was verified using Cronbach's alpha coefficient.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were first, mother's parenting attitude was affectionate and autonomy, infant stress caused anxiety-frustration experience, criticism-aggression situation, self-esteem impairment, and infant resilience was empathy, optimism, problem-solving ability, self-efficacy, and active challenge. , impulse control, and adapta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were classified into sociality, autonomy, and activeness factors. Second, a relationship of reducing infant stress was established when affection was high among mothers' parenting attitudes, but autonomy was not found to be related to infant stress. Third,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infant stress and infant resilience. Early childhood resili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adapta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but early childhood stress only had a partial effec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was that the influence of the impulse control ability of young children on the adapt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was the greatest. In particular, since boys have lower impulse control than girls, daycare centers need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that allows them to listen and focus on other people's stories so that they can develop their impulse control.

**Key Words** : child-rearing attitudes of mothers, children's stress, children's resilience, adjustment to early childhood educational centers, 5-year-old children

---

\* Director of sungwon childcare center.